

명상과 깨달음의 지혜 담은 티베트 관련서

달라이 라마의 강연록과 티베트 불교 해설서가 주종 이뤄...
방한 맞아 관련서적 출간 러시 이를 듯

최근 서점가에는 티베트 관련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80대 후반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티베트 관련서들은 지금까지 약 40여종 가까이 출간됐으며 그 종류 또한 명상서에서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는 11월 달라이 라마의 방한과 더불어 티베트 관련 서적들은 한층 더 활발히 소개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 그리고 달라이 라마에 관한 서적 출간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서점가에 등장한 책만 해도 6~7종을 헤아린다. 이들 책은 달라이 라마의 강연록을 묶은 것에서 티베트 역사를 다룬 역사서, 그리고 명상록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책은 단연 명상록이다. 1990년 초를 기점으로 출간 붐이 일기 시작한 명상록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세상을 보는 지혜' 등으로 그 이름을 바꾸며 서점가의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명상록이 가장 큰 호응 얻어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은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달라이 라마, 공경희, 문이당)이다. 제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가초의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의 원제는 '평온으로 가는 길 - 매일의 명상'이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달라이 라마가 가르쳐 주는 지혜를 하루에 한페이지 읽어 나

갈 수 있도록 편집한 점이 독특하다.

불교의 가르침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짧은 글들을 묶은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라마 소파 린포체, 주민황, 정우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행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답하고 있는 책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명상법》(텐진 가초, 한국산, 예문당)도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티베트 관련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달라이 라마의 강연록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티베트 문제 봐야 한다”

《티베트와 중국》 펴낸 김한규 교수

김한규 교수(50, 서강대 사학과)가 펴낸 《티베트와 중국》(소나무)은 티베트에 관한 역사 연구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저작이다. 1400여년에 걸친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한 이 책은,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티베트 독립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독립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티베트에 관한 연구 선례가 있나 찾아 봤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이 책은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그리고 그의 망명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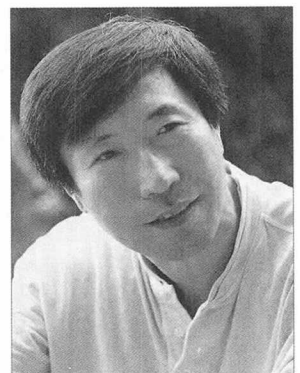
그는 이 책에서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두 개의 독립된 역사 공동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 책에 쓰인 '역사 공동체'라는 개념은 국가개념이 아니라 공동의 공간적 범주와 역사적 경험, 혈연·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티베트 독립을 둘러싼 티베트와 중국간의 문제를 현재의 국제관계 개념으로 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번 시대의 티베트와 당대의 중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는 티베트 연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우리 역사학계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관계가 먼 지역은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티베트가 우리와 관계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티베트에게 두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당이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는 티베트와의 전쟁 외중에 당이 스스로 철수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동도호부를 몰아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했을 때 공교롭게도 6·25가 발발했습니다. 티베트 문제가 국제연합에 먼저 상정됐지만, UN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티베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죠. 그 덕에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김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티베트에 너무 막연한 관심만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티베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정치적·문화적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연록이라고 해서 명상록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인생과 죽음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설법에 티베트 불교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다소 첨가돼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대부분의 책들이 불교 철학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강연 묶은 책들

《달라이 라마 삶의 네가지 진리》(달라이 라마, 주민황, 숲)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즉, 고집멸도(苦集滅道)에 관해 강연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아름답게 사는 지혜 — 티베트에서 온 자비의 힘》(텐진 가초, 주민황, 정우사)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달라이 라마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강의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텐진 가초, 류시화, 나무심는사람)는 1994년 달라이 라마가 세계 그리스도교 명상 공동체에서 신약 성경에 대해 강연한 내용을 담았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을 불교경전과 비교해 해석한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읽기에 다소 어려운 책도 있다. 《티벳 성자와 보낸 3일》(텐진 가초, 심재룡, 숲)은 제목에 혹해 집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1984년 런던 캠던 홀에서 다섯번에 걸쳐 이뤄진 티베트 불교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강연을 엮은 이 책은 불교의 기본원리인 '까르마' (업)를 '육취생사룬도'라는 그림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낙태와 안락사 등의 사회문제를 두고 달라이 라마가 청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한 부분은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다. 《달라이 라마가 설법한 37수행법》(달라이 라마, 이창호, 정우사)은 달라이 라마가 1974년 보드가야에서 설법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37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한 입문서와 해설서도 적지 않다. 이들 책의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최근 출간된 《티벳 해탈의 서》(파드마삼바바, 유기천, 정신세계사)는 에반스 웬츠 박사의 <티벳 총서> 4부작 가운데 마지막권에 해당한다.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파드마삼바바의 전기를 다루고 있으며, 해탈의 심원한 경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소갈 린포체, 오진탁, 민음사)는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영적인 수행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승려와 철학자의 만남

《승려와 철학자》(장 프랑수아 르벨 외, 이용철, 창작시대)는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그 첫번째는 대담 형식으로 씌어졌다는 점인데, 그 대담자가 서양철학자와 티베트 승려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대담자가 부자지간이라는 점이다. 아버지는 프랑스 한림원의 정회원이기도 한 유명 철학자며, 아들은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승려다. 서양철학과 불교를 비교·검토하고 있는 이 책은 티베트 불교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티베트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서울대 철학과 심재룡 교수

심재룡 교수(57, 서울대 철학과)는 《연못 속의 보석이어 — 티벳불교의 길잡이》를 펴내기도 했고 《유배된 자유 — 달라이 라마 자서전》을 번역하기도 한 티베트 불교 전문가다.

—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서양에서 불교는 19세기 중반, 극소수의 학자들 사이에서만 연구됐지만 2차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황의 막고굴에서 《성경》

의 원본에 해당하는 불교의 경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후부터 전세계에 불교학 붐이 일어났다. 또한 1958년 라사 함락 이후 티베트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피치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다.”

— 80년대 말부터 티베트 관련 서적이 많이 번역됐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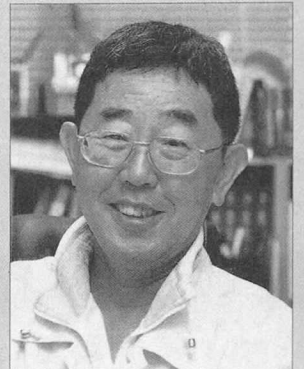
“이전까지의 불교는 개인의 평정심을 찾는 것을 최고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달라이 라마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70년대의 개발독재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당시의 우리사회가 원했던 모습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억압받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에서 동류의식을 느끼고 대안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 국내에 출간된 티베트 관련서는 다양하다. 하지만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책은 에세이류나 명상록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문화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물론,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명상서적을 읽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만 읽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에세이류의 책들은 섹스와 마약과 다를 바 없다. 단지, 일회성의 위안만을 줄 뿐이다.”

— 11월 16일 달라이 라마 방한을 계기로 바라는 게 있다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계기로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좀더 진지한 책들이 소개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티베트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지금 학승 몇 명이 티베트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들어 역사서, 기행문, 소설 등 다양한 경향의 티베트 관련서들이 소개되고 있다. 《티베트와 중국》(김한규, 소나무)은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조명한 책이다. 그리고 《티벳에서 온 편지》(김영중, 사계절)는 지은이가 티베트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이자 문명비판서. 스노우보드를 타러 히말라야로 갔던 스무살의 청년이 스승을 만나 겪은 체험을 그린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프레데릭 렌즈, 백영미, 황금가지) 역시 기행문 형식을 빌린 명상서다.

한편, 《티베트에서의 7년(전2권)》(하인리히 하러, 박계수, 황금가지)이 영화 개봉과 함께 출간된 이후, 티베트를 무대로 한 소설도 소개되고 있다. 현재 출간된 소설로는 《티벳의 사랑과 마법》(알렉산드라 닷윅 닐, 류재연, 문학동네)과 《달라이 라마의 둘》(켄 미첼, 김희수, 서광문화사) 등이 있다. 티베트 관련서는 오는 11월 16일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맞아 더 활발히 출간될 전망이다. — 최갑수 기자